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롬 13:11)
행동지침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79:1-13)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절망에 빠졌던 이가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을 몰게 하신 백성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로 확대되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본 편은 BC587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도성이 파괴된 후 아삽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쓴 탄원시로 예루살렘 파괴, 성전 모독, 백성의 학살 등을 언급했습니다.

1. 예루살렘의 파괴(1-4절)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아삽의 절망은 시편 74편에서 이미 나온바 있습니다. 아삽은 황폐되어 버려진 도성의 파괴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두 편의 시에서 고난의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유다를 멸한 자를 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셔서 찬송 받으실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은 본편에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살해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몇 안 되어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1-4절).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된 바입니다(렘 7:33).

이 같은 재앙의 대처에 관해 시 73, 77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1-2절에서 하나님께 사실을 보고하고 호소할 뿐입니다.

2. 하나님께 매달린다(5-8절, 9-12절)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5절).

아삽은 1-4절에서 애통하는 심정을 말한 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4가지 중요한 질문과 고백이 있습니다.

① 이 형벌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한 죄 보다도 훨씬 적은 고난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므로 그 형벌이 너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은 가끔 무겁게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사역은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② 우리를 벌하는 이들이 벌 받을 때가 있다.

시인이 하나님께 원수들을 멸하소서 라고 할 때마다 원수를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엄격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과 악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선벌악의 원칙을 잊어버린 채 고대 유대인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벌하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갚아질 것이며 모든 선과 모든 악은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③우리 죄를 사하소서.

참된 기도는 예배자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의 거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참 기도였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파멸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로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거나 희생제물을 다시 바침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충분한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④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G. Campbell Morgan은 시편 주석에서 본시의 3가지 주제 중 하나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수난을 말합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의 영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9절). 이 호소는 그 어떤 사람의 호소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3.하나님의 양들로부터 찬양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복지, 성지 예루살렘에 말로 형언키 어려운 참극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침공이 자신과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유와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폐허 위에 선 시인은 선민의 참상을 아파하면서도 주의 목장의 양떼로 주를 찬양할 날을 내다봅니다(13절).

기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3절). 절망에 빠졌던 이가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을 몰게 하신 백성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로 확대되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 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성도여러분, 지난 한

이규정 목사

먼저 세밀히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신 위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섬겼다기보다 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했다기보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르쳤다기보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워주었다기보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의 포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감사에 앞서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도록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윤영국 목사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복된 한 해였습니다. 은혜와 진리위에 든든히 세워진 서울교회에서 온 성도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사는 행복을 맛보았고,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긴 고백과 간증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13, 14교구 가족들과 중등부,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목회자신학세미나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담대히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감동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식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려 합니다.

사랑의 줄로 맺어 주신 9,10교구 가족들과 대학부, 예배위원회와 찬양위원회, 목회자신학세미나의 모든 분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펼칠 역사가 기대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상은 목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깊은 사랑을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속 섬기고 싶었던 11,12교구 성도님들과 소요리문답부, 비전2020운동본부, 주부대학, 스데반회, 엘리야선교회, 에스더전도회, 단기선교단의 성도님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2교구와 장년부를 새롭게 섬기게 됩니다. 이전 분들과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으나 새로운 섬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아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 함께 해주실 모든 분들께 더욱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명철 목사

2007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9, 10교구의 모든 일꾼들과 다락방 식구들, 전도위원회 위원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식당관리부, 차량관리부의 모든 부원들, 대학부의 교사들과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수요예배를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어린이들, 샬롬경로대학의 모든 교사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세례반을 함께 섬기신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중윤 위임목사와 교역자 일동

해 감사합니다!

정수길 목사

절대 침묵을 지켜야 하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 딱 한 가지 허용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memento mori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죽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현재 주어진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의 모습을 일러 carpe diem (카르페 디엠, 그날을 붙잡으라)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전자, 곧 memento mori 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서있는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또한 더없이 소중합니다.

2007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나의 삶은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했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새로이 섬기게 된 7,8교구와 청년1부, 설교사역도고부, 그리고 기존에 섬기던 고등부와 교구위원회 등 여러 섬김의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2008년 새해가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장석남 목사

코카콜라의 사장 로버트 우드루프(Robert Woodruff)는 "내 몸 속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면서 죽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는 꿈을 꾼다고 했다지만, 저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가 저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저는 자면서도 좋아서 웃습니다. 바로 70인 전도대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리얼 크리스챤' 입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저는 올해도 참으로 행복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분들과 함께 전도와 양육에 전념하며 저의 전부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올 한해동안 아직 설익은 젊은이인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영적 멘토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슴을 설레이게 하던 초등부 어린이들의 초롱한 눈동자와 초등부 교사들의 그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유년부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기도로만 후원하였던 영어예배부, 늘 가족처럼 지냈던 7,8교구 가족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도와 수고와 땀을 쏟으며 수고하였던 청년부의 젊은이들과 선생님들, 특히 임원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하나님 품안에 거하면서 올해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임규현 목사 (에바다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감사할 일도 넘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에바다부도 수고한 만큼 열매도 맺을 수 있었고 열심히 달려왔으므로 후회 없었던 한해였지만 주님 앞에서 되돌아 볼 때면 너무나 부족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에바다부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으며 서로 협력하여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서울교회 온 성도들의 사랑과 성원의 결과라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농인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에바다부가 되겠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속에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태훈 목사

언제나 12월이 되면 순례자 편집실에서 교역자들에게 글을 부탁해 옵니다. 일년에 한 번 쓰는 글이지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글은 아닌 듯 싶습니다.

먼저, 많은 얼굴들이 떠 오릅니다. 저의 마음 속에 담겨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을 마치는 날에도 이 분들은 추억 속에서 함께 하실 분들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용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는 자유도 저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쓰임받은 교역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영 전도사

금년 한 해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와 같이 한 해를 달려온 구제위원회와 상조부 회원들의 협조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전히 무릎으로 묵묵히 교회의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 주신 샬롬권사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한분, 한분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하루 하루가 주안에서 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한 가정을 찾아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권사회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전국에서 찾아오신 목사님들을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대접해주신 권사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를 찾아오신 새얼굴들을 껴안고 기도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새가족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다 안아주시어 복에 복을 더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광일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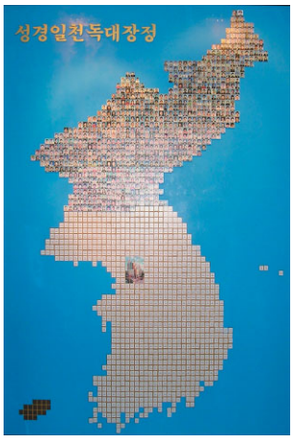
지난 한 해는 디아스포라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절절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불모지인 저 북한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 뜨겁게 체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고향,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희 디아스포라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헌신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교사선생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이 디아스포라부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울교회 1

1. 성경 일천독 대장정

교회는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100주년인 올해를 '성경의 해'로 정하여 1년동안 천 명 이상의 성도가 신구약 성경을 1회 완독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연초부터 신청자를 받아 실행에 들어갔다. 모두 1,800여 성도들이 성경1독 완독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며, 교회는 1독 완료를 한 성도들의 사진으로 만든 한반도 지도를 교회에 게시하고 시편강해 1권을 상품으로 주며 격려하였다. 또 홍해작전과 사명자대회 새벽기도회 때도 성경통독사경회를 열어 성경 독파를 이어가는 등 교회 창립 이래 유례없는 '성경읽기 열풍'이 일 년 내내 이어졌다.



▶ 백만인 전도운동을 펼친 서울교회

2. 서울교회, 백만인 전도운동 시범교회로 운영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대부흥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0만인 전도운동>을 시행키로 하고 그 시범교회로 서울교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100만인전도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한 해 동안 장-단기전도학교 운영과 태신자 초청예배 등 다양한 전도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결과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우리교회 박이선 집사에게 100만인 전도운동 개인전도상을 시상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가 노회부문 전도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3.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강연회 주최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함께 제3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리더십>이란 주제로 3명의 17대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지난 15대 대선부터 5년마다 교계에선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진행해 온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는 올해는 10월 29일에 이인제, 이명박 후보, 11월 5일에 정동영 후보가 연사로 나섰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종윤 목사의 진행으로 각 후보의 신앙관과 시국관에 관한 질문과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선을 두 주 앞두고 12월6일에는 우리교회 당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4. 서울교회, 교계 '각광'

제92회 총회에서
새 번역 주기도, 사도신경 채택 · 공포

이종윤 목사는
총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
총회성경표준주석 출간에 기여로 감사패 받아

9월 10일부터 나흘간 청주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92회 총회에서는 개회 직후 총회장이 새로 번역된 주기도, 사도신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채택, 사용한다고 공포했다. 지난 5월에 이미 전국 노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새번역 주기도, 사도신경은 당초 서울교회 당회의 헌의로 추진된 일이었고 이종윤 목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백여 년의 한국기독교사에 있어 획기적인 일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감사의 제목이 됐다. 또한 이종윤 목사는 총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성경표준주석 출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5. 찬양예배 - 특별찬양 문화의 기독교화 기틀을...

지난해 말부터 음악감독직이 회복되고 음악감독 활동이 본격화한 것에 발맞춰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매 주일 저녁 찬양예배 때 설교를 마친 뒤 특별찬양 순서를 갖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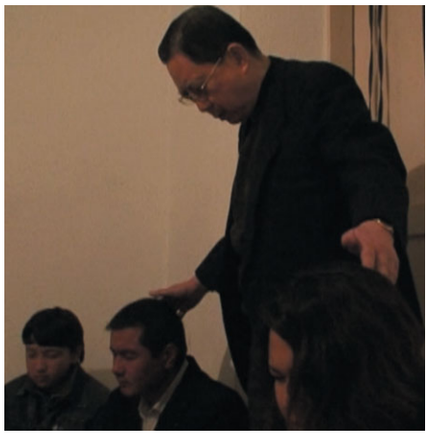
찬양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이 특별찬양 순서에 뛰어난 외부 음악가들을 초빙해 격조 높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10대 NEWS!

6. 파송 선교사들 현지 교회 창립 잇따라

우리교회가 파송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는 11월 11일 카자흐스탄 타라즈 시에 미르교회라는 이름의 새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과 세례식을 가졌다. 미르교회 예배당은 모슬렘권 선교의 교두보로서 우리교회 성도들이 무명으로 바친 헌금으로 이뤄졌다.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8월 5일 주일에 '순례자의 집(The Pilgrims' House)'이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등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예배당 창립 소식이 잇따른 한 해였다.

▶ 카자흐스탄 미르교회 헌당식과 세례식



7. 주일 국가자격시험 폐지 추진

"

이종윤 목사는
8월2일 한기총과 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 세미나
"일요일 국가시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
주일 국가자격시험 폐지운동에 앞장

"

주일에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만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기독인의 인재등용을 제한시키는 반인권적인 제도라는 판단 아래, 한기총을 비롯한 개혁교회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일 국가자격시험 시행중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8월2일 한기총과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일요일 국가시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일 국가자격시험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일간지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주일 국가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11월 13일 이상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의원들이 국회에 '주일 국가고시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내년에도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8. 탈북민 청년 위한 영어교실 개강

탈북민 출신 청년들을 위한 영어교실 READ (Rainbow English Academy for Diaspora Leaders)가 7월 2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미래 북한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선도해나갈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READ는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영어 강의를 통해 많은 새터민 청년들에게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열정을 함양시키고 있다.

▶ 탈북민 청년들을 위한 영어교실

10. 청년부, 권사회, 스데반회 분할

늘어나는 청년부와 권사회, 스데반회 회원수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는 내년부터 이들 조직을 각각 분할하기로 결의했다. 회원들의 연령분포가 10년 이상 20년까지 크게 벌어져 있었던 청년부와 권사회의 경우 청년부는 30세 전후, 권사회는 60세 전후로 나눴다. 스데반회 또한 60세를 전후로 제1,2 스데반회로 나누어 부흥에 박차를 가했다.

9. 교회 홈페이지 대폭 개편

교회 멀티미디어단은 지난 7월 29일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일 2부 예배를 생방송으로 인터넷 중계를 하기 시작했다. 또 교회신문 <순례자>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컨텐츠를 대폭 강화한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

"

김민철(편집부)

성경일천독 대장정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지혜

최유현 성도 (청년부)

안녕하세요? .

벌써 한국을 떠난 지 5 년이라서 이젠 이곳 파리의 생활이 더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는 일은 처음 올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올해 초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성경일독하기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하겠다며 지망하고서는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읽으면서 조금씩 읽어나가는 재미와 또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것이 삶의 지혜와 힘이 되면서 여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읽어 나가기가 점점 소홀해 질 때 즈음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교회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붙여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은 사람들은 그곳에 이름과 사진이 올라간다"고. 마치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달란트를 주시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저도 꼭 올 해 안에 일독 하여서 지도에 이름과 사진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은혜 가운데 다 읽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고, 중요한지를 더욱더 크게 깨달은 해 였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판단이 어려워 고민되고,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의지하며 살기로 기도하고 작정한 한해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2008년을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반갑습니다 - 노헌상 목사님

선한 목자가되기를...

■ 목사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으며, 영등포교회에서 7년 4개월 동안 교육목사와 교구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공부할 기회를 가진 뒤에 우리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중학교 1학년)과 두 딸(5학년, 4학년)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교회와의 인연과 부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교회와의 처음 만남은 교역자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력서를 내면서부터입니다. 부임하면서, 먼저 우리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섭리가운데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목사님의 기도제목은?

저의 기도제목은 교회적으로는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선한목자,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 서울교회를 바라보시는 인상과 바라시는 말씀

서울교회에 부임해서 받은 인상은, 서울교회가 성경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예배와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현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으로 우리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맡으신 부서 소개 및 비전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13교구와 14교구, 영아부, 유아부, 어린이 수요예배, 학습세례반, 빌립선교회, 도르가 전도회입니다. 교구사역을 통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교구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싶으며, 유아부 어린이와 학습세례반에서는 믿음의 기초를 전하고 싶고, 어린이 수요예배를 통해서는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커나가도록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교회가 이 지역의 빛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일에 함께 기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집부-

겨울철 건강관리

겨울철, 조심하세요

이지동 집사 (1교구)

1. 골절

나이드신 노인과 모든 연령에서 겨울철은 골절이 가장 빈번히 일어 나는 계절입니다.

노인들은 골 다공증의 증가로 인해 조금만 삐끗해도 골절을 당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젊은이 들은 최근 겨울 스포츠의 증가와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날씨로 노면이 얼어서 많은 골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요하는 계절입니다.

평소에 지속적인 칼슘섭취와 우유, 야채,과일, 잡곡등 골고루 영양섭취를 하고, 가벼운 등산과 자전거 타기, 조깅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골 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낙상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낙상으로 인한 척추 골절과 고관절 주위의 골절이 유발 될수 있습니다.

고관절 주위 골절시 사망율이 높으므로 넘어지지 않도록 노인분들은 손을 빼고 다녀야 하며, 보행시 지팡이를 짚고 , 집안 곳곳에 손잡이가 될 만한 것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고, 넘어질때 버티면 더 큰 손상을 당할 수 있으니 과감히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3.응급처치

중상이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4가지 응급처치 방법은 안정(Rest),얼음찜질(Ice),압박(Compression),올림(Elevation)이며, 이는 상처를 입은 직후 부터 48 시간 지속해야 하며, 이러한 처치가 통증과 염증 반응을 감소 시키고 통증을 억제합니다

1) 안정 : 활동 양을 줄이며, 보행시 지팡이 사용과 손상 부위에 부목을 대어 줍니다

2) 얼음 찜질 : 20 분씩 4- 8회 가량 수건에 싸서 부종을 감소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 시켜 줍니다

3) 압박 : 압박으로 국소부위의 부종과 안정을 돕습니다.

4) 올림 : 심장 보다 높이 올려 부종을 줄려 줍니다.

응급처치 직후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가 요합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 예배

2008년 1월1일 0시 정각 본당에서

2007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2008년을 맞이하는 첫 시간을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2008년 1월1일 0시 정각에 본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다.

11시30분에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이 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서 위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11시30분 소등이 되기 전에 본당에 입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금년에도 송구영신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해외에 나가있는 가족들이 시청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서울교회 홈페이지 www.seoulchurch.or.kr 메인화면 송구영신 예배 생중계)

한편 1세 미만 영아들은 403호, 유아부, 유치부는 702호에서 예배드린다.

모든 성도가 회개와 감사로 준비하는 송구영신예배가 되도록 바라고 기도한다.

송년음악회

12월31일(월) 밤 10시 본당

우리교회 찬양위원회(위원장 박두호 장로)는 2007년 마지막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송년음악의 밤을 준비한다. 기악과 성악 순서로 이루어진 이날 밤 프로그램에는 오케스트라 서곡(아멘 관현악단. 임범창 지휘) 으로 시작하여 기타 독주 (장윤식 집사), 오르간 (박준호 선생 /가브리엘 찬양대 오르간니스트), 여성 이중창 (이지연, 최유경. 가브리엘 찬양대 쏠로이스트)과 테너 독창(류충기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교회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중창이 은혜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2008 청지기 수련회

주제: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1월7일(월)-12일(토) 새벽 5시 본당에서

2008년 청지기 수련회가 2008년 1월7일(월)부터 12일(토)까지 6일간 본당에서 열린다. 청지기 수련회 중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열리며 새벽기도회 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 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장로, 권사, 집사 등 중직자와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등 모든 청지기들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권사은퇴 · 장로안식년
후반기 전도상 · 성경일천독 시상 · 주간성경공부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7년 마지막 찬양예배 시간은 다양한 행사로 이어진다. 먼저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시다가 총회 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분들을 서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는 한편 2008년 한 해 동안 안식년을 갖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은 고윤화 이규희 이순례 정연택 정종순 권사 다섯 분이며 안식년을 갖는 장로님들은 김광신, 노문환, 최학인, 조정식, 신용식 장로 다섯 분이다.

그리고 2007년 후반기 전도상 시상과 매주일 주보와 함께 주간성경공부 수료, 성경일천독 대장정 마지막 시상을 한다. 수료자 및 시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도상

2007년도에는 70인 전도대원에 의한 전도등록 489명 (41.0%), 서울교회성도에 의한 전도등록 363 (32.7%), 본인 스스로 등록 312 (26.3%)명으로 총 1164명이 등록하였다. 100명이상 전도한 성도에게는 대상을, 50명 이상 전도한 성도에게는 금상을 시상하며, 일 년 동안 수고한 70인 전도대원들과 하반기에 한 명이상 전도한 성도들에게 전도상을 시상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박이선, 임명숙 **금상**: 박길희

70인 전도대원 (101명): 강숭웅, 고금란, 곽미숙, 곽선자, 곽 숙, 경은숙, 김경현, 김규희, 김금준, 김동진, 김미성, 김보경, 김상태, 김수정, 김숙자(권), 김숙자, 김양숙, 김영식, 김 옥, 김은순, 김정순, 김정애, 김한성, 김해중, 남현주, 노정숙, 노진아, 박길희, 박미경, 박분옥, 박상희, 박순례, 박신자, 박 옥, 박이선, 박정임, 박태선, 박필순, 배은경, 배준길, 백혜영, 서수녀, 서순희, 서영세, 석상화, 성순란, 손영호, 신선주, 신은경, 신은숙, 안미경, 양호선, 원세경, 유경희, 유안순, 윤숙지, 윤숙희, 윤현미, 은기장, 이경혜, 이귀숙, 이규희, 이난화, 이미송, 이미연, 이봉선, 이선희, 이승래, 이승문, 이영미, 이옥심, 이인선, 이자혁, 이지동, 이창희, 이현주, 이혜경, 임명숙, 장명순, 전행자, 정기자, 정미연, 정복순, 정애신, 정연택, 조영자, 조정란, 조정옥, 주경자, 최명순, 최봉희, 최성희, 최세정, 최춘숙, 하영숙, 한상준, 허현숙, 현승희, 홍광숙, 홍성혜, 황정아

※ 하반기 일반성도 전도자 (90명)

강두화, 강푸름, 고선옥, 구연옥, 권소희, 김다희, 김명희, 김미향, 김성은, 김성주, 김명순, 김복순, 김소진, 조동희, 김애순, 김영민, 김예림, 김은희, 이남북, 김재경, 김정훈, 김정희8, 김진숙, 김진환, 김필구, 김학철, 김해찬, 김혜정, 남효문, 마경녀, 박광일, 박두호, 박상훈, 박성희, 박우주, 박정원, 박지운, 박향미, 배서영, 배옥선, 배정자, 백승갑, 박길자, 심상필, 양호경, 엄성훈, 김혜영, 오유진, 우혜원, 윤선애, 윤숙지, 나기태, 이경옥, 이관규, 이관모, 이금순, 이민숙, 이복규, 한명순, 이상섭, 이선경, 이승원, 이신원, 이영조, 김정희, 이정열,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임송자, 임영숙, 장연자, 장인원, 장호림, 전철웅, 정애신, 차도훈, 채정석, 채호승, 윤선애, 천정연, 최규초, 노순례, 최소희, 최순애, 최윤경, 최태욱, 황윤정, 황현정

▶ 성경일천독 시상

<15독> (12교구)김경칠 장로 **<9독>** (14교구)권길자 권사 **<6독>** (10교구) 정동호 집사(12교구)정동호 집사 **<5독>** (1교구)이응선 장로 (9교구)송옥혜 권사 (10교구)이점숙 권사 **<4독>** (1교구)장양일 집사 (13교구)강민자 집사 **<3독>** (5교구)임범창 집사 (8교구)임윤자 권사 (14교구)정미연 집사 **<2독>** (1교구)최규초 집사 (2교구)방계운 권사 (3교구)정소영 성도 탁경준 집사 (6교구)박정수 집사 오은이 집사 (8교구)송갑순 권사 (9교구)김은애 권사 윤봉준 장로 이성애 권사 (11교구)박상준 성도 신정순 권사 서명철 목사 (13교구)김미성1 집사 (에바다부)원호철 성도 <필사> (4교구)승영강 권사 (7교구)나소정 성도 (10교구)여현진 권사 **<1독>** (1교구)김경숙 집사 김경희 성도 김자숙 집사 김정희 집사 김화정 집사 노창훈 집사 민영기 집사 박명철 집사 박진경 성도 박찬성 집사 박한옥 집사 손태현 성도 송광호 집사 심명숙 집사 안미경 집사 이수련 집사 이영숙 권사 이영숙2 집사 이진구 집사 임대훈 집사 최예순 집사 한은경 성도 한은경 집사 홍승전 집사 (2교구)송미정 집사 이은자 집사 주정희 집사 최봉애 권사 최홍렬 집사 (3교구)강해진 집사 곽선자 권사 김선이 권사 김현관 집사 김현정 권사 노인숙 집사 마은숙 권사 박영숙 집사 서양지 집사 원강희 성도 인명임 집사 임현영 성도 정병수 집사 최경분 집사 최원자 권사 최임수 집사 최정인 집사 (4교구)백혜숙 권사 신정일 집사 여영숙 권사 유기찬 집사 윤용미 집사 이승민 성도 이영자 집사 (5교구)김복희 집사 김사라 권사 김승록 집사 박은영 집사 백수남 집사 손재겸 권사 임영여 성도 전미경 집사 정건 집사 황혜자 권사 (6교구)김무선 집사 김정란 집사 김혜진 성도 박남순 집사 박병수 집사 박정수 집사 이종숙 성도 조광희 성도 황보추자 권사 (7교구)김권집 집사 김영례 집사 박길자 집사 박종민 권사 백승갑 집사 이태원 집사 최정희 집사(8교구)권영옥 권사 이종물 집사 주의현 권사 (9교구)가원정 권사 신혜진 성도 안승민 성도 유묘종 집사 이강전 집사 전미애 집사 조기선 집사 (10교구)김명숙 권사 김미혜 집사 백정순 권사 (11교구)김혜련 집사 박선미 성도 박혜선 집사 안인호 집사 왕경래 장로 이강미 성도 이명신 집사 이명희 집사 이양숙 집사 임명숙 집사 장정화 권사 전수자 집사 전화진 집사 조복자 집사 허숙 권사 (12교구)김경희 성도 김관흥 집사 김인수 집사 김정희 집사 나기태 집사 나미경 집사 나미용 집사 나상민 집사 박순자 권사 양동덕 집사 양문열 학생 (13교구)강성은 집사 권영욱 성도 김경래 집사 김경현 집사 김미경 집사 김미성1 집사 김신애 집사 김영란 집사 김영미 집사 김은희9 집사 김정제 집사 김주현 권사 김필임 집사 김현숙 권사 김혜영 성도 김혜중 집사 김희순 집사 박응수 집사 백승정 장로 서정선 집사 양미정 집사 양정실 집사 여상범 집사 오정숙 집사 유슬기 집사 유하영 집사 윤동수 집사 윤현미 집사 이미해 성도 이미해 집사 이인선 집사 이중미 집사 임경락 집사 장애순 집사 전하미 집사 정미자 집사 정종환 집사 최미경 집사 최성욱 집사 한경례 집사 한명자 집사 홍건표 집사 (14교구)권길자 권사 김진희 권사 서순희 집사 신순복 성도 이계자 집사 이규창 집사 이태승 집사 전인숙 집사 정기자 서도 차신혜 학생 (대학부)김보연 유윤지 임연주 임종현 최나래 최화미 홍하연 (중등부)윤미진 (고등부)김소연 (청년부)김지현 박준희 신혜영 이한나 이현숙 임경민 임규연 조현정 최아영 (초등부)김동준 이준현 정서우

▶주간성경공부 수료

1교구: 경은숙, 고석규, 국산옥, 김명숙, 김수원, 김영옥, 류순임, 박영자, 서경애, 윤만현, 이소명, 이인숙, 임송자, 임옥균, 장양일, 정복순, 최규초, 홍순복 **2교구**: 배은희, 손현순, 안창휘, 오충례, 유근종, 이응선, 정봉금, 최형열 **3교구**:김정순, 배재송, 이경규, 이순례, 이채봉, 이해순, 진영숙, 임분도 **4교구**: 김금복, 김무선, 김복녀, 김혜경, 유기찬, 이승민, 이승희, 홍광숙 **5교구**: 박창희, 백수남, 이광열, 이윤영, 임선철, 최소희, 최학인, 황선희 **6교구**: 강영순, 김경옥, 김희진, 박정수, 서영세, 서정애, 이원희, 허인숙 **7교구**: 김숙행, 김차순, 김태기, 손명근, 윤운식, 이상호, 이성직, 정연택, 정정희, 함은희 **8교구**: 강희자, 김정운 **9교구**: 김명화, 김진숙, 송옥혜, 유신, 이부자, 임낙식, 조명녀, 조상희, 전용순, 최영란, 한옥순, 한종우, 황노선 **10교구**: 윤찬오, 이점숙, 진선자, 최종시 **11교구**: 강남희, 나옥녀, 이경희(박), 이경희, 이두원, 이민화, 이승준, 이강미, 이옥희, 이홍기, 장정화, 전배호, 조정옥 **12교구**: 김인순, 김형택, 남정열, 박정섭, 송성식, 양숙란, 윤정식, 이동수, 이병헌, 정희순, **13교구**: 권은주, 김동진, 김미경, 김미성, 김영숙, 남현주, 방효철, 송인숙, 이금순, 이상은, 이중미, 주화인, 최양봉, 함언호, 홍건표 **14교구**: 김옥순, 원명희, 정미연 **교육부서**: 이은희, 진경자

나의 하나님 – 태안반도에 다녀왔습니다

재앙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나소정 (청년부)

지난 12월 22일 토요일, 종강을 하자마자 충남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 새벽 5시에 출발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8시 즈음이 되었습니다. 어스름이 걷혀가는 천리포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자원봉사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7일,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에 1만 900톤의 검은 기름이 쏟아진 이후로 이 일대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 폐사한 굴과 전복, 조개 등속과 어류들이 이미 상당히 부패하여 역한 기름냄새와 썩은 내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폐사한 것은 비단 바닷가의 생명들 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검게 변한 모래사장처럼 어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가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 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먹물처럼 변한 파도와 검은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절벽과 바위들, 이미 응고가 시작되어 돌과 모래틈 사이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는 타르 덩어리들, 태안반도는 검고 음울한, 거대한 유화와 같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멀리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섬들과 동굴들, 백사장 아래로 깊숙이 스며든 기름들이 아직도 어마어마한 양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저는 작은 희망과 큰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삼삼오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장을 찾은 수많은 젊은 가족들을 비롯하여 노부부,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교회의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습니다. 해가 있을 동안, 그리고 썰물이 진행되는 동안, 꼬박 하루를 허리는 커녕 무릎도 세워보지 못한 채 기름을 닦아 내면서도 기쁜 얼굴로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도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지만 수많은 손들의 수고는 고난을 당한 이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었고, 이 현장을 채우는 작은 찬양 소리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전해졌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범들은 여전히 책임 공방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정작 그 현장에는 사랑과 용서를 채우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힘겨운 시련을 겪는 형제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호복과 장화 및 중식과 간식 등이 제공되며 마스크와 면장갑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 지면 좋겠습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월5일(토) 총회 서울 강남북 남선교회 · 장로회 협의회 신년하례회 특강을 한다.

■ 수상 : 김민철집사(5교구 KBS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 득남 : 박형준 성도, 조수현 성도(3교구)가정

■ **주간 식당 봉사 :** 제1스데반회(12.30) 제2스데반회(1.6)

■ **금주의 식사 :** 한긍수 집사 박춘자 권사 가정,
박충구 집사 문승순 집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특 별 찬 양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와 문하생 초청 송년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나라 최정상의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와 12명으로 구성된 문하생들이 방문하여 송년 찬양을 드린다.

김영미 교수는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하고 베로나 국제콩쿨 우승, 파로마 국제콩쿨우승, 자코모 푸치니 콘테스트 1 위, 마리아 칼라스 콩쿨 입상등 세계 유수 음악 콩쿨에 입상하였고 미국, 일본 , 이태리 등지에서 수많은 오페라에 출연함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성으로 찬양의 선교에 앞장서온 신앙심 깊은 성악가이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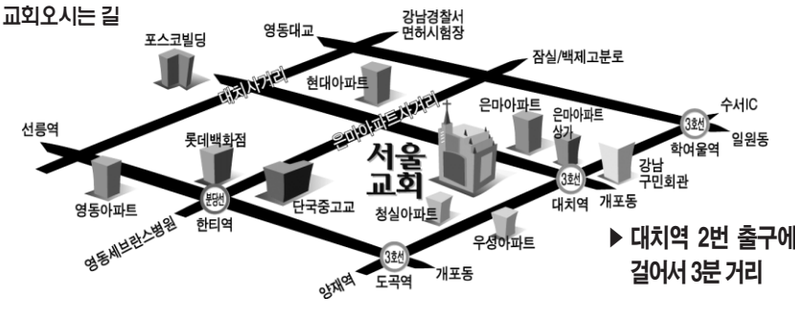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Ⅰ부	오전 9시
	Ⅱ부	오전 11시20분
	Ⅲ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Ⅰ부	오전 11시
	Ⅱ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년도를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2. 2008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3. 예 · 결산 심의를 위한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위하여
4. 새 정부 출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